

## <시각자료로 보는 문화>(Visualizing Cultures): 소개

1. <시각자료로 보는 문화>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때 널리 퍼져 있던 이미지들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학자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외국인과 적을 비롯한 타자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한 그 타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시각자료로 보는 문화>는 사용자들, 특히 학자와 교사와 학생들이 이제까지 접할 수 없었던 자료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이 자료의 신중한 분석과 활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주제 단위마다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참고문헌목록 및 상세한 수업계획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인터뷰를 비롯한 동영상들은 일부 설명과 분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이미지들은 확대하여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교육적 활용을 위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시각자료로 보는 문화>는 ‘예술감상’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 제시된 주제 단위들은 보는 이들이 각각의 이미지를 신중하고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주제 단위 내에 ‘핵심전시’(Core Exhibit) 항목을 만들어 여러 시각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4. 일부 시각자료들은 가혹하고 불쾌한 것들입니다. 이는 바로 역사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많은 이미지들이 미학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거나, 보는 이를 즐겁게 하거나, (사진처럼) ‘사실적’인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시각자료로 보는 문화>의 목적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대를 바라보고 표현해왔던 여러 방식들을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우리는 폭력, 불관용, 인종차별주의, 공격적인 민족주의, 전쟁과 잔학행위, 타인에 대한 학대, 환경의 파괴와 같은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시각자료들을 자체 검열을 통해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가혹한 이미지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6. 2006년 현재 <시각자료로 보는 문화>는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본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문화들’은 서구화, 근대화, 기술의 변화와 대중매체, 제국주의, 민족주의, 군사주의, 인종차별주의, 상업화와 소비주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앞으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아시아의 사진술과 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의 모더니즘을 주제 단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초에 발생한 (중국에서의 전쟁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서로 적대적이었던 이들의 다양한 관점과 선전물을 통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7. <시각자료로 보는 문화>의 내용을 신중하게 그리고 본래의 제작의도를 유념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과거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지들을 이곳에 제시된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지들을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정보를 제한 없이 공유하고 전달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시각적 이미지를 폭력과 증오의 악순환을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각자료로 보는 문화>가 지향하는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2006년 5월 5일

존 다우어 (John W. Dower)

시게루 미야가와 (Shigeru Miyagawa)